

# 농가 점검사항 겨울철 대비



엄 현 중 원장  
피그월드동물병원  
한국양돈수의사회 총무

돼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농장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방치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잘 되어야지 하는 하나의 바람으로 이를 그대로 두는 농장이 많다.

특히, 한 겨울철 돈사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돼지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의 변화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 건강한 모돈과 육성·비육돈들은 괜찮을 지 몰라도 그 이외의 돼지들은 어떨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다고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한 성적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양돈의 전체 출하두수가 모돈 두당 14두 정도 밖에 안되고 이에 앞서 이유두수가 모돈 두당 20두 전후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할 시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위 10%를 나머지 90%가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 글에 적는다고 해도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래에 기재되는 내용은 모든 농장주분 들은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단지, 이 글에서 한 번 더 상기 시키는 것이며 아래의 농장들은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 1. 돈사 시설의 단열 점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사 시설의 단열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돈사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강이 필수적이다. 현재, 판넬, 중고판넬, 우레탄, 인슐레이드, 비닐, 보온덮개 등 여러 가지의 단열 재료들이 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한 계절에만 적용되는 시설 보완이 아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부득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시설 단열이라는 것이 꼭 한 계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절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집을 보라. 외풍이 심한 집에서는 여름은 여름대로 덥고 겨울은 겨울대로 춥다. 돼지를 잘 키우는 방향으로 보다는 돈을 버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돼지의 체력 유지열량으로 손실되는 사료 값도 경영차원에서 허실이다.

## 2. 전기 시설의 점검

전기는 꼭 점검을 해야 한다. 전업사에 이야기하여 전기에 관련된 사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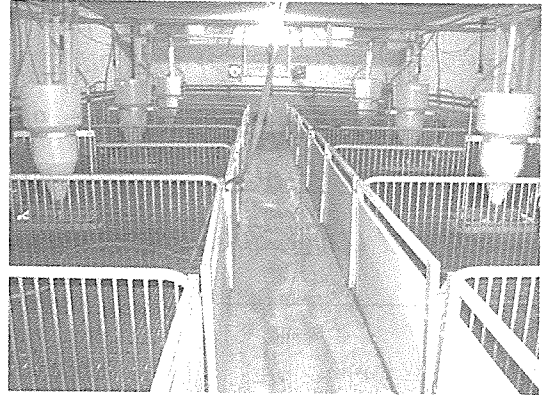
매월 점검하고 수리하여야 할 것은 수리하여야 한다. 화재는 언제 올 지 아무도 모른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 3. 구서대책 마련

취를 잡자.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쥐들이 돈사 내로 들어온다. 특히, PED 발생한 농장에는 꼭 쥐들이 눈에 띈다.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이다. 요즘은 구서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농장에 따라서는 돈이 아깝다고 안하는 경우와 하다가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떠나서 꼭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이다.

### 4. 원치조절을 통한 환기 점검

환기에서는 실천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밀폐된 돈사의 경우라도 원치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해 놓고 이 방안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관리시간에 원치를 오픈하여 환기를 시켜라. 사람 집도 계절과 관계없이 자고 일어나면 눈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추운 겨울에도 말이다. 특히, 방 청소하는 경우에 많이 열기도 한다. 물론 환기를 시키지 않는 집도 있다. 돼지를 하루 종일 돈사 내에서는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리자가 들어가서 보는 시간 10~15분 정도 원치는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원치를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켜라. 물론 그 횟수는 하루에 3~4번 정도 해주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하지만, 돼지는 눈을 자주 맞추어야만 그 효력이 온다. 물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



▲ 돈사를 비우는 기간동안 돈사를 소독하고 청소한다. 이로써 질병의 원인제공하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 이 방법을 적용시킬 때 내 농장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적으로 돈사 내 온도가 한 겨울에 7도가 나오는 돈사는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돼지가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돈사의 열은 이미 하늘 위로 사라지고 없다. 단열이 안되다 보니 공기의 대류와 전도율이 높아서 환기가 너무 잘되고 있다. 이 돈사에서 살고 있는 돼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주 들어가서 돼지들의 눈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점검해야 한다.

### 5. 웬을 이용한 환기 점검

웬을 이용하라. 열은 위에 있고 아래는 가스가 있다. 아래에서 빼내고 단 조건은 입기구는 배기구와 가장 먼 곳에 두어라. 그리고, 웬은 작은 웬으로 세분하라. 한 예로, 용마루를 입기구로 하고, 300웬을 이용하여 측면 피트배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또, 비닐닥터를 이용하여 공기를 불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방안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4계절을 같이 이

한 겨울철 돈사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돼지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의 변화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 건강한 모돈과 육성/비육돈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외의 돼지들은 어떨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다고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한 성적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6. 적극적인 후보돈 도입과 교체

사양관리에서 모돈들은 강하게 키우고 알찬 모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선결조건은 후보돈 교체율을 40% 이상 가져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후보돈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종돈을 구입하여 자체 생산하라. 폐쇄돈군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질병적인 부분도 유리하다.

### 7.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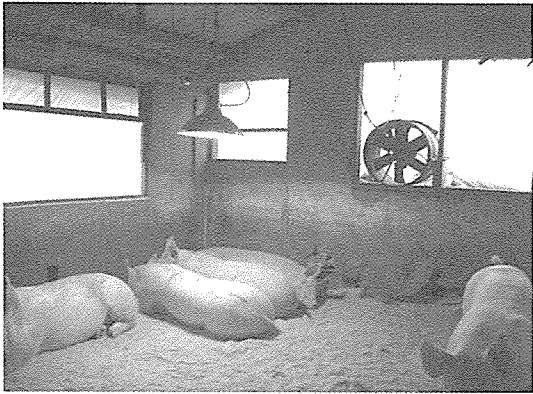
그리고, 방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문제돈, 이유돈, 후보돈을 방목을 주기적으로 해주어라. 매일이 아닌 1주일마다 3~4일 정도 밖에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돈사와 돈사 사이라도 관계없다. 겨울이라도 상관없다. 톱밥이라도 깔아주어라. 바닥은 흙이 많을수록 좋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돼지들을 강건하게 키우자. 또 하나, 분만돈사를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라. 포유기간을 25일 이상 가져가라. 21일 이유를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다. 하지만 잘 하는 농장보다 그 반대인 농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컨테이너 분만사라도 만들면 된다.

### 8. 체형별 사료관리

제일 중요한 사항 - 사료관리를 체형별로 잘 관리하라. 농장에 따라서 약간 마른 것을 좋아하는 농장주와 약간 찐 것을 좋아하는 농장주가 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임신단계별 체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사료 증량 시기를 잘 선택하여 증량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유증 혹은 저유증이 있는 농장들은 70~90일 기간의 돼지 과비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이 기간의 과비는 분만사에서 사고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 9. 돼지 스트레스 예방

돼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백신 접종 이후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과감하게 접종 일령을 조절하여 접종하고, 밀사로 인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면 과감하게 자돈도 판매 혹은 위탁하고,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트레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 그리고, 사료 급이기의 구조를 보라. 특히, 습식 급이기의 경우 사료와 물이 섞여서 사료가 오염



▲ 모돈 교체율을 40%로 유지시키려면 적극적인 후보돈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장에 맞는 도입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모돈교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된다. 이유는 사료 나오는 량을 적게 급여하는 농장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료통은 건식으로 가고 물 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과 추가 급이기를 설치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스트레스는 모르는 사이에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조금씩 쌓여서 어렵게 하지 마라. “나 스트레스요”라고 이야기 하는 요인들은 없다.

## 10. 돈사 비우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농장의 최선책은 “돈사를 비우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돈사를 비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돈사를 비우기 시작하면 이유 후 육성율을 20~30% 폐사율에서 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기간은 세척한 상태에서 15일 이상 말리면 가장 좋다. 쉬운 선택이 아니다. 알면서

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것이 좋다는 결론은 이미 자료로서 나와 있고 농장주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제 실천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농장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 II. 철저한 소독과 방역

마지막으로 소독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지, 이것만은 알아두길 바랍니다. 소독이라는 의미는 “청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사를 매일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면 돼지가 그 만큼 오염의 기회가 줄어들어 매일 발생하는 공기의 먼지를 제거해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일정수준 유지하는 농장일수록 돈사간의 소독유무 특히, 장화에 의한 오염도가 높다는 점, 되도록이면 장화를 교체하여 착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분만사 / 자돈사)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면 철새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한 번도 쉬지 않고 2,000km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왜냐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돼지가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죽고 있는 상황이다. 절실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감각이 무디어 졌다고나 할까? 돈사 비우기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철새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2,000km를 이동하는 것처럼...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찾는 우리돈육